

- 주요 뉴스: 미국 나스닥지수, '22년 9월 이후 최대폭 하락. 경기침체 우려 등이 반영
 - 미국 뉴욕 연은,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소폭 상승. 관세정책 불안 영향
 - ECB 카지미르 위원, 단정적인 금리인하 시각 경계. 유로존 3월 투자자신뢰는 개선
 - 중국, 예고대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 미국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경기침체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발언 등으로 큰폭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등으로 1.3%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경기침체 우려 불구 인플레이션 재반등 가능성 등으로 소폭 상승
유로화 가치는 강보합, 엔화 가치는 0.5%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금리인하 기대 증가 등이 원인
독일은 재정준칙 수정에 대한 일부 야당의 반대, 차익매물 출회 등으로 약보합
- ※ 뉴욕 1M NDF 증가 1457.2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60.0원, 0.30% 상승). 한국 CDS 강보합

		3/10일	3/7일	전일대비			3/10일	3/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614.6	5,770.2	-2.70%	국채 금리 10y	미국	4.21%	4.30%	-9bp
	유럽	546.20	553.35	-1.29%		독일	2.83%	2.84%	-0bp
	중국	3,366.2	3,372.5	-0.19%		영국	4.64%	4.64%	+1bp
	일본	37,028	36,887	+0.38%	CDS 5y	한국	31bp	31bp	+0bp
	한국	2,570.4	2,563.5	+0.27%		중국	49bp	47bp	+2bp
환율	달러지수	103.91	103.84	+0.07%	위험 지표	EMBI+	-	369	-
	유로화	1.0834	1.0833	+0.01%		VIX	27.86	23.37	+19.21%
	엔화	147.27	148.04	+0.52%		WTI유	66.03	67.04	-1.51%
	위안화	7.2600	7.2459	-0.19%	원자재	구리	464.0	468.3	-0.93%
	원화	1,455.5	1,449.5	-0.41%		금	2,888.7	2,909.1	-0.7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나스닥지수, '22년 9월 이후 최대폭 하락. 경기침체 우려 등이 반영

- 3/10일 경기침체 우려 증폭 등으로 주요 주가지수가 급락. 특히 나스닥지수는 4.0% 떨어져 '22년 9월 이후 최대폭 하락했고, 다우 및 S&P500지수도 급락(각각 -2.7%, -2.1%).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큰 폭 하락(4.21%, -9bp)
-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경제가 전환기를 겪고 있다고 평가. 이로 인해 정부가 경기침체를 각오하고 강경한 관세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며 투자심리도 악화. 특히 주요 빅테크(Apple -4.9%, Nvidia -5.1%, Tesla -15.4% 등)가 하락을 주도
- 백악관의 해셋 국가경제위원장은 1/4분기 GDP가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고,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4월 초에 해소될 것이라며 경기침체 우려 완화를 위해 노력. 하지만, 시장에서는 향후 증시 및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지속
- Goldman Sachs는 금년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2.4% →1.7%) 관세 및 보호무역정책이 경제에 고물가와 금융시장 혼란 등의 충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HSBC는 관세 불확실성을 이유로 미국 증시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JPMorgan은 S&P500지수가 5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
- 다만 시장에서는 주가가 이번에 급락한 이후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Morgan Stanley의 마이크 월슨 스트래티지스트는 S&P500지수가 5,500까지 떨어지고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으나, 연말에는 6,500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 Yardeni Research도 주가의 급락 이후 급반등 가능성을 거론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뉴욕 연은,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소폭 상승. 관세정책 불안 영향

- 소비자 대상 조사에 따르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연율)은 3.1%로 전월(3.0%) 대비 올랐고, 3년 및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모두 3.0%로 전월비 보합. 이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및 강경한 이민자 정책 등을 반영한 결과
- 한편 전미소매협회(NRF)는 2월 소매판매(자동차 및 휘발유 제외)가 전월비 0.2% 감소했다고 발표. 이번 결과는 관세 불안, 실업 증가, 추운 날씨 등에 기인

■ ECB 카지미르 위원, 안정적인 금리인하 시각 경계. 유로존 3월 투자자신뢰는 개선

-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의 카지미르 총재는 역내 인플레이션 관련 여전히 많은 위험이 존재하며, 이에 금리인하를 예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 한편, 유럽위원회의 세프코비치 통상 및 경제안보 위원은 2월에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미국 측은 무역합의 도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비판
- 유로존 3월 Sentix 투자자신뢰는 -2.9를 기록, 전월(-12.7) 대비 큰 폭 상승. 독일의 국방 및 인프라 관련 지출 확대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 독일의 1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2.0% 증가, 예상치(1.5%) 상회. 한편, JPMorgan은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하여 금년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0.8%→0.9%)

■ 캐나다의 카니 차기 총리 내정자, 미국의 관세 압박에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

- 여당인 자유당의 대표로 과거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마크 카니가 차기 총리로 선출. 그는 미국이 공정한 무역 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강조. 한편, 이날 온타리오주는 미국에 공급하는 전기 가격에 2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

■ 중국, 예고대로 미국産 농산물에 보복관세. 미국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

- 중국 정부는 예고한 것과 같이 10일부터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를 15%, 유제품과 쇠고기 등에는 관세를 10% 인상. 한편 WSJ 등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6월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를 시작. 시장에서는 양국 간 무역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관련 의견도 나눌 것으로 예상

■ 일본 1월 실질임금, 전월비 감소.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세는 지속

- 1월 명목임금은 29.5만엔으로 전년동월비 2.8% 늘었으나, 실질임금은 1.8% 감소. 이는 물가 상승률이 명목임금 상승률을 상회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한편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기대가 이어지며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575%까지 올라 16년 5개월래 최고치 기록. 다음 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열릴 예정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1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월 JOLTS 구인건수 및 2월 NFIB 중소기업낙관지수, 일본 4/4분기 GDP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연준의 금융시장 영향력 약화 등을 초래 - Reuters

(Trump chaos pushes central banks into shadows)

- 트럼프 대통령은 당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부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언급. 이에 경기침체 혹은 주가 급락 시 정책이 재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약화. 최근의 이러한 모습은 오랫동안 금융시장과 정책에서 주요 플레이어(player)였던 연준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
- 실제로 트럼프 정부가 세계경제의 틀을 재편하고 투자지형의 흐름을 바꾸면서 연준의 경제 및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감소. 특히 연준은 향후 경제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정책 결정 관련 자신감도 약화. 연준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재정정책의 영향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은 분명

■ 독일의 국가부채 제동장치 개혁, 유로존 경제 회생의 전환점이 될 소지 - 블룸버그

(Germany's Debt Brake Surprise Is a Game Changer)

- 메르츠 차기 총리가 부채 제동장치(Debt Brake)의 기준을 완화하여 국방 및 인프라에 5,000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과 독일의 과도한 재정건전성 기준이 자국 및 EU 전반에 투자 부진을 초래했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조치
- 이번 계획은 극우당의 반대로 의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 반면 시장에서는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 결과적으로 이는 역내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되며, 장기 투자를 통한 생산량 증가로 GDP 대비 채무비율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미국 트럼프로 인한 대서양 동맹의 종식, EU 통합 가속화를 유도 - Financial Times

(Trump is making Europe great again)

- 트럼프 대통령은 NATO 동맹을 약화시키고 EU에 관세를 부과. 이러한 행보는 역설적으로 유로존 통합 가속화로 연결. 유럽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등 지정학적 충격에도 통합을 강화했고, 지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으로 대응
- 첫째, EU 방위산업에 대한 1,500억 유로 투자를 결정한 가운데 특히 미국 의존도가 높은 방공 분야에 집중할 방침. 둘째, 공동채권 발행을 통해 유로화 입지 강화 추진. 셋째, 영국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유로존 방위기금도 고려

■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 증가하는 공급 충격 반영하여 상향 조정될 필요 - 블룸버그

(The Fed's Fixation on a 2% Inflation Target Is Risky)

- 연준은 통화정책 체계에 대한 검토에 나섰으나, 파월 의장은 2% 인플레이션 목표가 논의의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과거에 비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급 충격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에 구속될 경우 정책 유연성을 상실할 위험. 이에 현행 목표치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일각에서는 목표 수정이 연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 그러나 과도하게 긴축적인 정책이 이어진다면, 오히려 연준의 독립성과 경제에 더 큰 타격이 더해질 가능성. 이에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2.25% 또는 2.5%로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일 소지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 정책 추진, 자국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소지 - Financial Times

(Donald Trump's coercion descends into chaos)

■ 미국의 양호한 주택담보대출 확대 여력, 향후 소비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The US economic trump card)

■ 미국 증시의 AI 붐, 과거 닷컴 버블과 유사.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유도 기대 - WSJ

(What the Dot-Com Bust Can Tell Us About Today's AI B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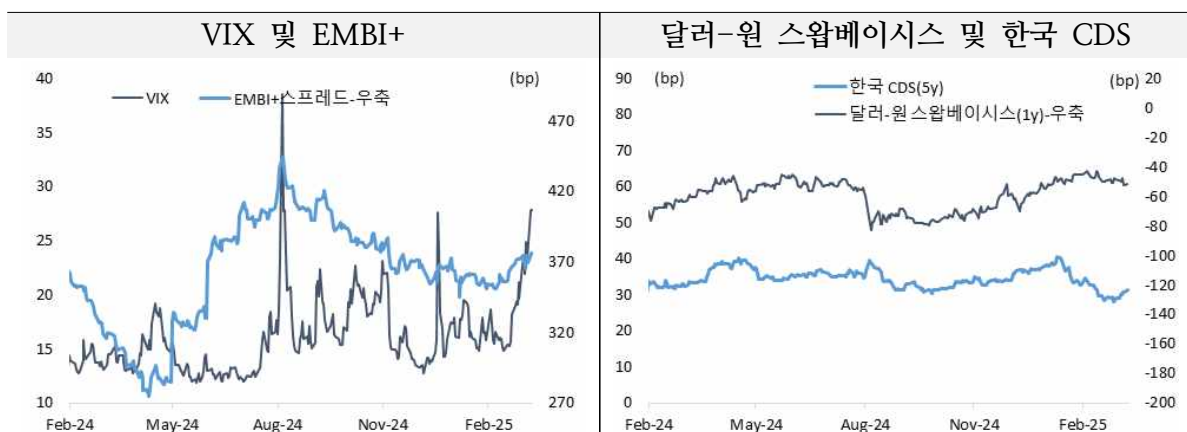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